

미사 도서 배정의 원칙과 이점

미사에서 봉독하는 성경 말씀은 임의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1969년 교회가 제정한 체계적인 원칙에 따라 배정되며, 이를 이해하면 봉사자로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전 세계 공통의 독서 목록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는 같은 날 같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1969년 발행된 「미사 독서 목록 지침」(Ordo Lectionum Missae)에 따라 배정됩니다.

- 오늘 한국의 성당에서 읽히는 말씀은, 같은 시각 아프리카·유럽·미국의 성당에서도 동일하게 봉독됩니다.
- 이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하나의 말씀 안에서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2. 독서 배정의 일반 원칙

구분	내용
전례 시기 반영	대림(이사야서), 성탄(요한 1서), 부활(사도행전) 등 각 전례 시기의 특성에 맞는 성경 권수를 배정
길이와 가독성	신자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길이 유지
구절 생략 기준	이해하기 너무 어렵거나 비평적 문제가 있는 구절은 전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생략하기도 함

3. 주일 및 대축일 독서 (3년 주기)

- 구성: 제1독서(구약) + 제2독서(서간 또는 요한 묵시록) + 복음
- 3년 주기(가·나·다해)로 운영 — 3년이 지나면 같은 본문을 다시 읽게 됨

배정 원칙

- 주제의 조화: 독서의 주제와 내용이 서로 연결되도록 배치
- 준연속 독서: 성경 본문의 순서를 따르되 전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만 생략하며 읽어 나가는 방식

가·나·다해 복음서 배정

주기	연도 예시	주 복음서
가해	2023, 2026, ...	마태오 복음
나해	2024, 2027, ...	마르코 복음
다해	2025, 2028, ...	루카 복음
공통	모든 주기	요한 복음 (특정 전례 시기)

4. 평일 독서 (2년 주기)

구분	내용
----	----

구성	독서 1개(구약 또는 서간) + 복음
복음	매년 같은 본문 반복
첫째 독서	홀수해 / 짹수해 2년 주기로 배정 → 더 폭넓은 성경 말씀을 접하는 효과

5. 핵심 의미

교회는 전례주년에 맞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신자들이 하느님 구원 역사를 깊이 깨닫도록 돕습니다.

- 미사에 매일 참례할 경우, 3년이면 신·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통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독서자·해설자는 본인이 읽는 말씀이 어떤 전례 시기의 흐름 속에 있는지 미리 파악하면 더 깊이 있는 봉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사순 시기(2026년 2월~4월)에는 회개와 죄송의 주제가 담긴 말씀이 배정됩니다.

봉사자를 위한 실천 팁

- 미사 전날 당일 독서 본문을 미리 찾아 읽어보세요. (가톨릭 굿뉴스 → 매일미사)
- 현재 전례 시기(대림·성탄·사순·부활·연중)를 파악하면 말씀의 맥락이 보입니다.
- 제1독서와 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며 읽으면 봉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 어려운 지명·인명은 반드시 미사 전에 발음을 확인하세요.

참고: 가톨릭 굿뉴스 · 「미사 독서 목록 지침」(Ordo Lectionum Missae, 1969) | 어망 (Fish-Net) 보충 자료